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5. 1. 12. Vol. 2

■ 농정이슈

미국 등 5개국, 한국 쌀 관세율 513% 이의 제기 등

■ 정책브리핑

「국산 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

■ 연구지원

2014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 현장여론

「농업의 성장산업화 관련」 해외 현장 리포트

☞ 농정이슈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 미국 등 5개국, 한국 쌀 관세율 513% 이의 제기

- **[쌀 관세화 시행]** 쌀 관세화 조치는 WTO 농업협정에 따라 국내 법령 개정을 통해 2015.1.1. 부터 시행
-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한국 쌀 관세율 513% WTO에 공식 이의제기]** 한국이 WTO에 제출(2014.9.30.)한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한국 쌀 관세율 너무 높다**며 이의 제기, 정부, 양자 협의 진행 중이며 향후 513% 관세율 관철할 계획
 - ※ (WTO 통보내용) 쌀 관세율 513%,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2014년 기준 TRQ 물량 408,700톤 기준과 같이 유지하되 국별쿼터와 용도제한은 철회
 - (국별 기존 쿼터: 중국 11만6,159t, 미국 5만76t, 태국 2만9,963t, 호주 9,030t)
- 자료 : 경향신문-머니투데이-서울신문-세계일보-한겨레(2015.1.3.) / 농민신문(2015.1.5.) / KBSYTNN-NEWSis-매일경제-서울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데일리-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2015.1.6.) / 서울신문-세계일보-한국일보(2015.1.7.) / 농민신문-농수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신문(2015.1.9.)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_「쌀 관세화 예정대로 금년 1월부터 시행 - 미국중국 등 5개국, 이의 제기 -」(2015.1.6.)

□ 201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확정

- **[농식품부, 201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확정]** 벼 1등급 기준 40kg 포대 당 **57,740원***
 - ※ 수확기(10~12월) 전국 산지쌀값 평균(80kg 기준 167,347원)을 벼 40kg 가격으로 환산
- **(지급 계획) 1월 중**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한 농가들에게 기 지급한 **우선 지급금(52,000원, 포대별 1등급 40kg 기준) 차액 5,740원 지급**

■ 공공비축미곡 등급별 매입가격

단위: 원/벼 40kg

구 분	특등		1등		2등		3등	
	2013년산	2014년산	2013년산	2014년산	2013년산	2014년산	2013년산	2014년산
포대별	62,730	59,640	60,730	57,740	58,030	55,170	51,650	49,110
산물별	61,910	58,791	59,910	56,891	57,210	54,321	50,830	48,261

※ 산물벼는 포대별 매입가격에서 “포장 비용(자재비+임금)”을 제외하고 지급

자료 : NEWSis-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데일리-헤럴드경제(2015.1.8.) / 농민신문-한국농업신문(2015.1.9.)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201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확정 - 벼 1등급 기준 40kg 포대당 57,740원 -」(2015.1.8.)

농정이슈

한·콜롬비아, FTA 발효 등 실질협력 증진 방안 논의

- **[한·콜롬비아 외교장관 회담 개최, 17., 서울]** 윤병세-마리아 앙헬라 올긴* 외교 장관, 정무-통상-인프라-개발-국제무대 등 제반 분야 실질협력 증진 방안 논의
 - ※ 콜롬비아가 올해 혹은 향후에 (반군과) 평화협정 맺고 국가적으로 안정된다면 농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이나 산업 부문에서 많은 경쟁력 가질 것, 한국은 매우 이상적인 협력 국가라고 강조
- **(한국 측)** 콜롬비아 의회의 한·콜롬비아 FTA 비준*(2014.12.) 환영의 뜻 표하고, **빠른 시일 내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콜롬비아 측의 적극적인 노력 요청**
 - ※ 한국의 한·콜롬비아 FTA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 2014.4.
- **(콜롬비아 측)** 한·콜롬비아 FTA 자국 내 비준 절차 관련 헌법재판소 검토 승인 남아 있지만 **수개월 내 마무리 예측**
 - ※ 한·콜롬비아 FTA 서명(2013.2.)했으나 콜롬비아 산업계의 반발 등으로 비준 절차 지연, 의회 비준 이후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헌법 합치성 검토 남아 있어 FTA 발효에는 시일 소요 예상

자료 : YTN(2015.1.7.) / 국민일보·NEWSis·서울신문·세계일보·연합뉴스·헤럴드경제(2015.1.8.)

참고 : 외교부 보도자료_「윤병세 장관, 「올긴」콜롬비아 외교장관과 회담 - 올해 대중남미 상생협력외교의 뜻을 올린다.」(2015.1.7.)

겨울 당근 수급안정대책 추진

- **[저장 및 가공확대 등 추가 수급안정대책 마련추진]** 제주도 및 당근생산자협의회의 **겨울당근 수급안정 노력**에도 가격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11,500톤(생산량의 17%)에 대한 추가 수급대책 마련**
 - ※ 제주도 및 생산자협의회 중심으로 저급품 출하제한 등 자체 대책(2014.10.~) 추진 중이나 수급불안 지속
 - ※※ 당근 가격 추이: (2014.10.) 34,066원/20kg → (11) 14,801 → (12) 15,153
- **(주요 내용)** △본격 출하기(1~2월) 앞두고 과잉물량 해소 위해 **저장물량* 확대** (기존 10,000톤 → 15,000, 5,000톤↑) 및 **산지에서 자율감축** (4,000톤)으로 **9,000톤 시장격려, 가공수요 확대(2,500톤)**, △소비촉진 추진 및 사업비 매칭 지원
 - ※ 저장물량(1~2월 저장, 3~5월 출하)은 향후 수급불안 시, 수급안정용으로 활용

자료 : SBS(2015.1.6.) / 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2015.1.7.) / 농수축산신문·농축유통신문·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신문(2015.1.9.) / 농촌여성신문(2015.1.12.)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과잉물량 해소 위해 겨울당근 수급안정대책 추진 - 제주도 및 생산자의 자체 수급대책에 더하여 추가 대책 마련 -」(2015.1.6.)

농정이슈

2014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이행률 96.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 이행실태 조사, 2014.10.17.~11.12.]** 원산지 표시의 적정, 부적정, 미표시 여부 조사 결과, 2014년 원산지 표시 이행률 96.4%(2013년 대비 0.2%↑)
 - **(조사 결과) 농산물 96.7%(0.3↑)**, 농산물가공품 96.1%(1.1↑), 음식점 95.6%(0.2↓)
 - ※ 조사 건수: 24,223건 / 표시 부적정(95건), 미표시(773건)
 - **(결과 분석)** 대부분 원산지가 잘 표시되었으나 노점상과 대도시, 일부 품목은 표시가 미흡(지도와 강력한 단속 병행 방점)
 - 자료 : KBS·NEWSis·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2015.1.8.) / 농민신문(2015.1.9.)
 -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2014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이행률 96.4%」(2015.1.8.)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품질관리 양호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합동점검 실시, 2014.8.1.~12.26.]** 고품질·안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위해 학교급식 공급업체 품질관리 기준 준수여부 점검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동 조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4,785개소 중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 302개소 선정, 원산지, 인증품 표시사항, 장비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 불시 점검
 - **(점검결과)** 대부분 **품질관리 수준 양호(준수율 약 99.7%), 위반업체 1개소***
 - ※ 소고기 이력추적번호 미표시(과태료 부과)
 - 자료 : NEWSis·머니투데이·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투데이(2015.1.7.) / 한국농어민신문(2015.1.9.)
 -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이상없다 - 농관원, aT와 학교급식 공급업체 합동 점검결과 대체적으로 양호」(2015.1.7.)

비료·농약 혼합제품 개발 추진

- **[농식품부,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 제도 마련, 1.5.]** (단기) 비료·농약 혼합제 생산 관련 규정 개정 시행(2015.4.~), (장기) 비료 종류별로 농약성분 기준 제시 등 중장기적인 지원방안 모색(2016.1.~)
 - **(취지)** △새로운 농자재 기술개발 및 시장확대 등으로 비료 산업 활성화, △농촌 일손부족 문제 완화 및 영농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
 - **(주요 내용)** 농촌진흥청 고시로 되어 있는 비료공정규격에 농약 사용 허용
 - ※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비료를 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추가 개정 없이 혼합제 생산 가능

자료 : SBS(2015.1.4.) / 국민일보·NEWSis·세계일보·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투데이(2015.1.5.) / 농민신문·농수축산신문(2015.1.9.)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商用化) 방안 마련」(2015.1.5.)

구제역 및 AI 발생 현황

- **[구제역 방역조치 강화] 가축방역협의회 개최(1.4.)**, 구제역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강화하기로 하고, 현 상황이 “심각” 단계 격상 상황이 아니므로 “경계” 단계 유지 결론
 - (주요 내용) △이동제한 및 일제소독, △소독필증 휴대의무, △도축장 혈청검사 확대, △소독시설 설치 확대, △공수의 책임전담제, △가축 재입식 제한
 - (구제역 양성 및 의심축 확인농장 현황, 2015.1.5. 기준) 총 32개 농장, 살처분-매몰 (12.3~2015.1.5.) 26,155마리

- **[박대통령, 국무회의(1.6.)에서 구제역AI 확산 방지 지시]** 농식품부와 지자체 등 일선 기관 중심으로 구제역 확산방지, 체계적정교한 방역 시스템 갖춰 AI 확산 방지 강조

- **[국민안전처,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긴급 회의 개최, 1.8.]** 구제역 방역대책 점검, 구제역 확산차단 총력대응 독려

- **[언론, 구제역 확산으로 백신효능 문제, 돼지고기 및 한우 가격 상승 전망에 대한 정부입장]** 한국에서 사용하는 백신 효능 이미 검증된 제품으로 국내 바이러스 방어 가능, 구제역 방역 정책이 발생 개체 살처분 원칙으로 돼지고기 공급에 미치는 영향 미미, 최근 한우 가격 상승이 정부가 한우 수급 조절 위한 사육두수 감축한 탓 아니며 추후 농가 적정 소득 유지 수준으로 안정화될 전망

자료 : 경향신문농민신문머니투데이문화일보서울신문한국일보(2015.1.5.) / YTN국민일보매일경제머니투데이서울신문세계일보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중앙일보한겨레(2015.1.6.) / 국민일보농민신문머니투데이중앙일보(2015.1.7.) / SBS동아일보서울경제세계일보아주경제파이낸셜뉴스(2015.1.8.) / 농민신문동아일보연합뉴스조선일보한국농어민신문(2015.1.9.)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 「충북 괴산,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의심축 확인, 경북 의성군 및 안동시 소재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FMD) 의심축 2건 확인」(2015.1.3.), 「구제역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 백신 미접종시 가축 재입식 제한, 2차 전국 일제소독(1.7일) 실시 등 -」(2015.1.5.), 국민안전처 보도자료, 「국민안전처, 구제역 확산차단 총력대응 독려 -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긴급 회의 개최 -」(2015.1.8.), 농식품부 설명자료, 「“구제역에 육가공값 또다시 들쭉”(아주경제, 1.8) 기사 관련 설명, “한우대란 현실화하나”(서울경제, 1.8) 기사 관련 설명」, (2015.1.8.), 「“한국이 사용하는 백신, 구제역 막기 어렵다”(SBS 뉴스, 1.8) 보도 관련 설명」(2015.1.9.)

- **[경기 안성 소 및 돼지 구제역 양성]** 경기 안성시 축산면 소재 소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1.5.),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O형) 양성으로 확진, 옮겨울 그동안 **돼지에서만 발생하다가 소 확진판정은 이번이 처음**, 돼지 구제역 감염 추가 확인(1.9.)

※ 해당 농장 47마리 중 1마리만 임상증상이 나타났고, 면적이 잘 형성되지 않은 개체에서 한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

자료 : KBSMBCSBS-YTN국민일보-연합뉴스-중앙일보(2015.1.6.) / 국민일보매일경제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연합뉴스조선일보(2015.1.7.) / SBS농민신문(2015.1.9.) / 경향신문연합뉴스(2015.1.10.)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 「구제역(FMD) 의심축으로 확인된 경기 용인 돼지 및 경기 안성 소 구제역 확진」(2015.1.6.)

- **경기 용인 철새도래지 고병원 AI 확인(1.5.),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가 의심축 신고(1.6.)**

자료 : KBS-SBS(2015.1.5.) / KBS-SBS-YTN국민일보매일경제아시아경제연합뉴스(2015.1.6.)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2015.1.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5.1.5.)

개요

- **[농식품부, 「국민 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 1.5.]** 국내산 쌀의 소비 우려*, FTA, 쌀 관세화 등 농산물 수입 개방화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안전한 쌀의 안정적 생산 기반 마련 필요

※ 국내산 쌀에 대한 안전성 우려 및 소비자 불신 확대

- (목표) △농약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 예방 강화*, △부적합 쌀의 시중유통 사전 차단 강화, △안전한 쌀 생산을 위한 농업환경 기반 조성

※ ha당 농약사용량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9kg → 2)

주요 내용

- **생산유통 쌀에 대한 안전성 조사 강화**

- 쌀 직불제 이행 농가에 대한 안전성 조사 강화(2,250건 → 2,500)

※ 위반 확인 시 쌀 직불금 지급 제한(변동지불금1/2 감액 조치)

- 전년도에 수매 보관 중인 전국 RPC(미국종합처리장) 쌀 전수조사 실시

※ 전국 235개소 RPC 등 대한 안전성 조사(연 1,000건) 실시

- 쌀 부적합 농가에 대해 차년도 ‘안전성 재조사 사전 예고제’ 실시

※ 부적합 결과 통보 시 차년도 재조사 계획과 처벌사항 등을 사전 고지하여 농업인의 자발적 안전기준 준수 유도

- 쌀 부적합 확인 농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 부적합 농가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에서 제외 조치

※ 농림사업자 선정 시 후순위 선정 등 전체 농림사업으로 참여 제한 확대 계획

- RPC 등 시중 출하 쌀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합동 안전성조사

※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합동조사 실시 및 분석실 체험행사 등 소비자 정보교류 확대

☞ 정책브리핑

○ 농약 유통취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농약 불법사용 근절을 위해 명예지도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강화(연 2회 → 4)
- 농약 불법사용자와 판매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 강화
 - ※ 안전사용기준 위반 농업인: 60만 원 → 100, 불법추천 판매자: 300 → 500

○ 안전한 쌀 생산을 위한 농업 환경 구축 추진

- 농경지에 대해 비소 등 중금속 오염실태조사 및 토양개량사업 추진
 - ※ 토양 중 납, 비소 등 중금속 오염 지도를 작성하고 개량사업 추진
- 농업용수에 대해 오염실태조사 및 수질개선 사업 추진
 - ※ 부적합 농업용수에 대해 수질개선사업(100억 원/연) 추진
- 비소 등 중금속 흡수 저감화 방안 연구(~2017년)
 - ※ 물 관리, 중금속 저항성 품종 개발, 논토양 개량제 사용 등 중금속 흡수 저감화 방안 등
- 병충해 조기예찰제 도입으로 농약 사용 최소화 유도, 무인공중포충망 통해 병해충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 (기존) 주 1회 예찰 조사 → (개선) 1시간 간격 조사로 비래해충 발생량 확인

○ 쌀 안전관리 인프라 확대

- 안전성 검사장비 현대화로 검사 성분 수 확대(245성분 → 320)
 - ※ 수출 친환경농산물에만 적용하던 320성분 분석법을 쌀 등 전 농산물로 확대하기 위해 분석 장비와 인력 확충(~2017년까지)

☞ 정책브리핑

웰빙·안전·개방화 시대 GAP 확산 방안 마련

□ 개요

- **[농식품부, GAP* 확산 방안 마련, 1.5.] △비전:** ‘안전 농산물, 안심 소비자, 행복한 국민’, **△목표:** 2025년까지 유통되는 농산물을 모두 GAP로 하는 것, 최소한 전체 농산물의 50%까지 GAP 확대
 -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

□ 주요 내용

- **[깨끗하고 위생적인 농업 환경 조성으로 GAP 인증 여건 구축]** 농업 환경 개선 5개년 계획(2015~2019) 수립추진, 중앙 및 시군 단위 깨끗한 농업 환경 실천본부 구성운영(2015)
-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2025년부터 모든 정책지원사업에 GAP 의무화]** GAP 특화단지 조성·지원(2015~2017), 원예전문생산단지 등 규모화된 단지부터 유예기간 설정 후 GAP 의무화(2018~2025), 직불제 등 기존 보조사업과 GAP 인증 연계방안 검토
- **[농업인이 손쉽게 GAP 인증을 받도록 규제 지속 완화]** 과채류, 서류 등 품목별 특성 반영하여 인증 구비서류 간소화, 기 분석된 필지는 토양농업 용수 분석서 제출 완화
- **[대형유통업체 주도로 GAP 농산물 유통·소비 생태계 조성]** 정부-생산자-유통업체 간 MOU체결·상생협의회 운영, 유통업체 인증제 신설, 유통업체 GAP 납품 예고제 실시
- **[학교급식 등 GAP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 지속 확대·발굴]** GAP 급식 시범학교 운영(2015~2017, 100개교), 군납 등에 GAP 확대
- **[GAP 명칭 변경]** 농산물 우수관리 → 농산물 안전관리
- **[농산물품질관리원을 GAP 교육·홍보·컨설팅 기관으로 일원화]** GAP 교육·훈련 5개년 기본계획 수립(2015~2019)
- **[농업인 대상 컨설팅 강화]** 2016년부터 전문 인력 양성 위한 GAP 컨설턴트 등록제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유통조직에는 단계적으로 컨설턴트 보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1.5.)

연구지원 2014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자료 : 통계청(2015.1.9.)

총괄

- **[조사목적]** 가축 사육규모별 가구수와 연령 및 성별 마릿수 파악하여 축산정책 수립과 축산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조사대상) 전국 3,068개 표본조사구와 시도별·축종별 일정 규모이상 가축사육 농가
 - ※ (조사기준 및 조사기간) 2014.12.1. / 2014.12.1.~15.
- **[2014년 4/4분기 가축사육마릿수]** 전분기대비 한·육우·오리 감소, 젓소·돼지·산란계·육계 증가

2014년 4/4분기 축종별 현황(사육마릿수)

- **[한·육우]** 275만 9천 마리, **전분기대비 2.2%↓**, 전년 동기대비 5.4%↓
 - **(원인)** 송아지 생산 감소
 - ※ 한·육우 송아지 생산: ('13.12월) 108천 마리 → ('14.6월) 276 → (9월) 181 → (12월) 146
- **[젓소]** 43만 1천 마리, **전분기대비 0.5%↑**, 전년 동기대비 1.7%↑
 - **(원인)** 지속적인 원유수취가격 호조에 따른 송아지 생산 증가
 - ※ 젓소 송아지 생산: ('13.12월) 36천 마리 → ('14.6월) 32 → (9월) 42 → (12월) 46
- **[돼지]** 1,009만 마리, **전분기대비 1.2%↑**, 전년 동기대비 1.8%↑
 - **(원인)** 지속적인 가격 호조에 따른 모돈 증가 및 연말특수에 대비한 출하 지연
 - ※ 모돈 마릿수: ('13.12월) 895천 마리 → ('14.6월) 925 → (9월) 925 → (12월) 937
- **[산란계]** 6,767만 4천 마리, **전분기대비 3.7%↑**, 전년 동기대비 4.4%↑
 - **(원인)** 지속적인 산지계란가격 호조에 따른 입식증가 및 노계도태 지연
 - ※ 계란 산지가격(특란 10개): ('13.9~11월) 1,446원 → ('14.6~8월) 1,393 → (9~12월) 1,378

- **[육계]** 7,774만 6천 마리, **전분기대비 2.5%↑**, 전년 동기대비 1.6%↑
 - **(원인)** 연말특수에 대비한 입식증가
 - ※ 가구당 마릿수: ('13.12월) 48.9천 마리 → ('14.6월) 50.9 → ('14.9월) 48.1 → (12월) 51.3
- **[오리]** 753만 9천 마리, **전분기대비 8.0%↓**, 전년 동기대비 30.8%↓
 - **(원인)** AI 발생으로 인한 폐사 증가 및 입식지연
 - ※ 사육가구수: ('13.12월) 866가구 → ('14.6월) 549 → ('14.9월) 693 → (12월) 605

가축사육마릿수 총괄표

단위: 천 마리, 가구, %

구분	2012	2013		2014				증감	
	12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전분기대비	전년 동기대비
총 마릿수	3,479	3,465	3,342	3,239	3,302	3,249	3,190	-59(-1.8)	-152(-4.5)
소									
- 한·육우	3,059	3,043	2,918	2,811	2,879	2,820	2,759	-61(-2.2)	-159(-5.4)
· 한우	2,933	2,931	2,810	2,711	2,787	2,732	2,670	-62(-2.3)	-140(-5.0)
· 가임암소	1,232	1,234	1,166	1,141	1,192	1,165	1,123	-42(-3.6)	-43(-3.7)
- 젓 소	420	422	424	428	424	429	431	2(0.5)	7(1.7)
· 가임암소	299	304	304	307	306	310	305	-5(-1.6)	1(0.3)
사육 가구수	152,937	137,548	130,048	124,451	119,896	115,537	109,530	-6,007(-5.2)	-20,518(-15.8)
- 한·육우	146,930	131,685	124,218	118,584	114,128	109,820	103,837	-5,983(-5.4)	-20,381(-16.4)
· 한우	141,495	126,608	119,056	113,713	109,578	105,314	99,285	-6,029(-5.7)	-19,771(-16.6)
- 젓 소	6,007	5,863	5,830	5,867	5,768	5,717	5,693	-24(-0.4)	-137(-2.3)
돼									
총 마릿수	9,916	10,188	9,912	9,698	9,680	9,966	10,090	124(1.2)	178(1.8)
- 모 돈	962	897	895	910	925	925	937	12(1.3)	42(4.7)
사육 가구수	6,040	5,918	5,636	5,441	5,315	5,174	5,177	3(0.1)	-459(-8.1)
닭									
총 마릿수	146,836	136,721	151,337	151,838	176,064	151,635	156,410	4,775(3.1)	5,073(3.4)
- 산란계	61,344	62,674	64,824	64,572	62,851	65,263	67,674	2,411(3.7)	2,850(4.4)
- 육 계	76,130	64,505	76,487	77,879	103,593	75,846	77,746	1,900(2.5)	1,259(1.6)
- 종 계	9,362	9,542	10,026	9,386	9,620	10,526	10,990	464(4.4)	964(9.6)
사육 가구수	3,144	2,958	3,087	3,044	3,434	3,043	2,989	-54(-1.8)	-98(-3.2)
오									
총 마릿수	11,161	12,246	10,899	6,577	6,089	8,197	7,539	-658(-8.0)	-3,360(-30.8)
- 종 오리	1,231	1,143	1,064	692	709	810	804	-6(-0.7)	-260(-24.4)
- 육용오리	9,930	11,103	9,835	5,885	5,380	7,387	6,735	-652(-8.8)	-3,100(-31.5)
사육 가구수	852	929	866	515	549	693	605	-88(-12.7)	-261(-30.1)

주: (가구당 사육마릿수, 마리) 한·육우 26.6, 젓소 75.7, 돼지 1,949, 닭 52,329, 오리 12,462

현장여론 「농업의 성장산업화 관련」 해외 현장 리포트

자료: KRE 해외리포터를 대상으로 장익정보실 자체 조사

□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4. 12. 2. ~ 12. 29. (총 12건)
- 수집대상: KRE 해외리포트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수집

구분	성명	국가	요지
1	석준호	미국	농촌 및 지역 개발을 통한 농업의 성장산업화 연계 목적의 세 가지 프로그램 실시 중(LFPP, Rural Made Across the Country, StrikeForce)
2	윤종열	미국	광대역 통신망 보급, 스마트 브로드밴드 기술 보급, 폐기물을 활용한 수익 창출, 재생에너지 사업 등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위한 노력 지속
3	이주관	미국	미국의 중소도시 '포틀랜드'의 키포크적 라이프스타일에 주목, 친환경적이고 다양한 식품소비 패턴을 반영해 지역 농업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문화와 농업이 상생
4	권리나	일본	일본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에 주목...농업생산액의 40% 차지, 소비 지출금액이 가장 큰 '시설원예' 분야 관련 사업이 특히 활발
5	이윤미	일본	농협이 운영하는 농산물직매소 중 농산물의 판매뿐만 아니라 6차산업화 성공 사례로 꼽히는 사이사이기테야의 운영방식 등 검토
6	황선화	러시아	해충 잡아먹는 벌레(entomophages)를 이용해 총채벌레목 퇴치, 해충 제거 및 치료 목적으로 원예산업에 친환경 적용 가능
7	황선화	러시아	러시아 농업감독청과 교통경찰이 공동으로 도로에서 불법 식물검역을 실시해 불법 유통건수 221건 적발
8	권희준	프랑스	품질보증, 위생, 관세, 지원 및 관리체계, 수출 정책 등 프랑스 농식품 수출 활성화에 방해요소 많아 개선 노력 필요
9	이혜진	독일	재생산 가능한 생물학적 자원의 생산,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변환하는 bioeconomy는 독일 농업경제 및 정책의 주안점
10	최승광	호주	호주 농업의 청사진(2013~2020)에 호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목표 제시: 농업 인프라 개선, 자본 접근성 강화, 규제 완화
11	이주희	말레이시아	혁신적인 국가 농업의 산업화 추진을 위해 말레이시아 9차 농업정책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 도입
12	지형진	우간다	원시적 영농기술로 인한 낮은 생산성, 수확 후 관리 등 부가가치 생산기반 전무, 유통기반 취약...우간다 농업 성장산업화 절실

□ 해외 현장 리포트

국 가	주요 내용
미국	<농촌 및 지역 개발을 통한 농업 성장화 전략> • 농촌 및 지역 개발을 통한 농업의 성장산업화 연계 목적의 세 가지 프로그램 실시 - Local Food Promotion Program (LFPP): 지역 촉진 프로그램: 25%의 매칭 보조금 개발 및 지역 식품 비즈니스 기업 확장을 위해 지원. 지역 식품 비즈니스 기업의 확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업 유관 제품의 국내 소비의 증가 및 지역의 농장에서 새로운 시장 개발을 의미 - Rural Made Across the Country: 알맞은 가격의 주택, 에너지 효율, 도로, 다리, 인터넷 Access, 그리고 지역비즈니스의 대출 및 보조금 등을 투자해 비즈니스와 가족을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촌 지역 자체의 발전을 통해 농업 발전 이룩 - StrikeForce for Rural Growth and Opportunity (지역 발전 및 기회를 위한 StrikeForce): StrikeForce를 통해 400개가 넘는 커뮤니티 조직, 비즈니스, 재단, 그리고 다른 그룹들과 파트너 체결하여 80,300개의 프로젝트 지원 • 위 프로그램들은 농촌 및 지역 개발에 포커스 맞추고 농촌 및 지역 개발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하여 농업의 성장산업화와 연계하려는 의도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사례> • 국가 사회 기반 시설의 현대화, 에너지 독립성 강화, 교육 기회의 확대, 의료 보건 서비스 향상, 세금 경감 위해 미 농무부는 약 212억 달러 지원 • 텍사스 주 남부 농촌 지역의 최신 광대역 통신망 보급으로 지역 주민 및 소규모 채택 사업 주체들의 온라인 고등교육 프로그램, 직업 탐색, 사업 영역 확대 가능 • 뉴멕시코, 민관 협력 통한 스마트 브로드밴드 기술 보급으로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은 원격 의료 및 원격리 학습 기회 제공되고 사업 관련 3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기대 • 루이지애나 주, 폐기물을 활용한 수익 창출로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 소득 수준 향상 • 풍력 터빈 설치로 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하여 마이너 카운티는 재생 에너지 관련 컨퍼런스 및 교육 센터 설치하고 학생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일반 사업체의 친환경 재생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식 확산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농업과 식품산업: 포틀랜드와 키포크의 사례를 중심으로> • 포틀랜드는 미국의 중소도시로 친환경적 지형과 자연주의적 라이프스타일 유명 • 이 도시에서는 다양한 수제맥주제조업, 유기농 로컬푸드 식당, 파머스마켓과 푸드카트 등의 가공 유통 서비스 주체들이 지역 농업의 성장과 긴밀하게 연결 • 포틀랜드 사례를 통해 농업의 6차 산업화에 스토리와 스타일이 반드시 필요
일본	<일본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 일본 정부 6차 산업 시장규모를 (현재) 1조 엔인 → (2020년) 10조 엔 목표 - (지원) 전국적으로는 6차 산업 지원센터의 직원을 파견한 개별 상담, 기술 향상 위한 연수회 개최, 농업중사자와 유통업체와의 상담회 개최 등 지원 - (지자체별) 신상품 개발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지원, 가공 및 판매 시설 정비 지원 • 최근 동향은 농업 생산액, 지출 금액 비율이 높은 시설원예 분야 전개사업 활발 <식(食)과 농(農)의 르네상스 헤이마현(愛媛県)의 농산물직매소> • 최근 농산물 직매소사업 추진. 산지직매소 중에서는 농협이 운영하는 직매소가 연간판매액이 가장 높는데, 이 가운데 농산물의 판매와 6차 산업화에 성공한 오페이마바리농협(おちいまばり)사이사이기테야가(さいさいきて屋)의 사례 소개 - 사이사이기테야가: 지역농업의 위기 극복 위해 설립된 농산물 직매소,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주요 운영방식 7가지) ① 여협을 통해 생산판매 코너 운영, ② 점포 안에 자체 정미시설, 저온창고, 잔류농약검사분석실 구축 ③ 농가 부담 경감 위해 매일 아침 원격지의 농산물을 직접 수집, 영업시간 후 남겨진 농산물을 다시 각 농가에 배달해주는 집하 방식 ④ 채소 잔품은 가공하여 파우더로 사용, ⑤ 식당과 카페를 운영 ⑥ 면화의 제배에서 타올 제작까지 모두 지역에서 처리하는 면화프로젝트 ⑦ 타블렛을 이용해 물건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한 슈퍼사업 등도 도입

러시아	<농업의 융복합 사례 또는 관련정책,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등의 첨단기술 적용> - 해충 잡아먹는 벌레(entomophages)를 이용해 총채벌레목 퇴치, 해충 제거 및 치료 목적으로 원예 산업에 친환경 적용 가능 - Orius는 꽃가루 작물의 총채벌레목을 잡아 먹음. 총채벌레목이 발생 시 1평방미터당 5-10마리를 넣음. 다양한 작물과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 다른 해충 제거 및 유익벌레와 같이 사용 가능 2012년 식물을 보호하는 생물제제 및 entomophages가 121만8천 헥타르에 이용, 연간 생물제제 생산량 1,245톤 이상 - 짧은 저장기간을 해결하고자 멘델레예프 대학에서 건조 효모 기반의 기술 개발, 장거리 운송 및 원가 절감, 생산량 증가 가능 <브란스크 및 스몰렌스크주 도로에서 식물 검역 결과 외> - 러시아 농업감독청과 교통경찰 공동으로 도로에서 불시 식물검역 실시 결과, 식물 안정성 입증 서류 없이 식물 운송 건수 221건 적발 - XIV차 전 러시아 과학실용 컨퍼런스 “농어촌 러시아: 과거 및 현재” 개최를 통해 러시아 농어촌에 대한 실용적 연구 및 러시아 농어민에 대한 이해 확대 - 러시아 농업감독청, 유럽에서 러시아로 반입되기 위해 준비된 종자 감자의 감독 수행 - 러시아 농업감독청 실험실 검사 결과 10롯트의 불안전 식품 유통 불허
프랑스	<프랑스 농산물 수출 지원정책> - 품질 보증, 위생, 관세, 지원 및 관리 체계, 수출 정책, 프랑스인의 특징 등 프랑스 농식품 수출 활성화에 방해요소가 많아 농산물수출 성장 저해 - 농산물 수출업자 지원 조직 및 체계: Ubifrance, Sopexa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며 이 외에 Adepta, FranceAgriMer가 있음. - 사례: French GourMay(홍콩과의 교류를 위해 프랑스 대사관에서 기획), Asia comitte(아시아 지역의 농산물 수출확대 위해 농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등이 주관하는 위원회 조직), Taste of France a new York: Taste of France(프랑스 음식을 미국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 등 - 프랑스 식품수출 세계 2위 자리 복귀. 수출품은 곡물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와인, 주류, 육류 등 - 프랑스와 유럽에서의 소비는 정체 되었지만 중동,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에서 프랑스 농산품에 대한 수요 증가 - 프랑스 식품회사의 98%가 중소기업이므로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방법 필요
독일	<독일 농업의 성장산업화 bio-economy> - bio-economy는 농업, 임업, 어업, 양식업과 같은 1차 산업과 생물자원을 프로세싱하는 산업 - 최근 유럽연합 수준에서 생물자원을 이용한 bio-economy가 하나의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bio-economy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임. - 다양한 과학 분야 및 private, public, third-sector에서 bio-economy 지식 연구 활발 - 독일 정부, 전 세계적인 농업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bio-economy의 핵심동력으로서의 중소기업 지원, 학계-산업계 간 효과적인 협력 등을 통해 bio-economy 기술 개발에 주력 - 독일은 bio-fuel 분야와 bio-finery, aquaponics 분야에서도 앞서 있음.
호주	<호주 농업의 청사진 2013-2020 소개> 2013년 호주 농업의 청사진 2013-2020 발표. 총 7개의 주제 중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산업화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함. - 농업 경쟁력 강화 위한 총 7가지의 세부목표 설정하고 전략 제시. 이 중 농업 인프라 개선, 농업 부문 투자 증대, 농업관련 규제 완화가 우선순위 상으로 분류 (농업 인프라 개선 전략) 농업인프라 T/F 발족 및 운영, 인프라 개발 위한 자본 유치 방안 마련, 낙후지역 내 통신망 제공 통한 신기술 접근성 개선, 투자자 유치 위한 정책 및 법 정비 제시 (자본 접근성 강화 전략) 농업과 국내 및 해외 자본시장 연결, 생산농가의 소유 및 운영 방안에 있어 혁신적인 방안 마련, 외국인 투자의 투명성 확보, 외국인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 등 제시 (규제 완화 전략 제시) 정부/산업계 규제개혁 T/F 발족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9차 농업정책 thrust (RMK-9)> - 국가 농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농업 접근방식 도입 (수행안) ① 농업 생산성 증대: 새로운 성장요인으로 큰 민간 부문 참여 ② 농업 기반의 과점활동 및 농산물 다양화 확대 ③ 마케팅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④ 소농, 농민, 어민들의 소득 향상 ⑤ 유통서비스 시스템 개선 (목표) ① 농민 부문의 3.2%와 비교해 7.6%의 부가가치 성장 생성 ② 식품 무역 RM 12억의 흑자 달성 ③ 농업 기반 산업을 위한 5.2%의 부가가치 성장 달성 ④ 농업기반 산업과 식품 생산활동 상업화 위해 민간 부문으로부터 RM 201억 가치의 투자 유치 ⑤ 다양한 상품에 자가 충족 수준(Self sufficiency level) 달성 (구현 전략) ① 농식품 생산 면적 증대 ② 심해와 참치잡이, 해초, 관상어 및 화훼와 같은 성장의 새로운 자원개발 ③ 농업 기반 산업의 발달 증진 ④ 목표 대상그룹의 수입원 다양화 ⑤ 농업 생명공학 및 해양 생명 공학의 이윤 추구 ⑥ 마케팅 능력 증진 ⑦ 국제 표준과 품질 ⑧ 대출 및 인센티브 제공 ⑨ 전체 요인 생산성 강조 9차 말레이시아 농업정책 계획의 구현은 농업부문을 현대화되고 역동적이고 경쟁적인 분야로 혁신적이고 산업화된 국가적 리더십의 전략적인 의도와 부합
우간다	<우간다의 농업 성장 산업화> - 우간다는 넓은 농경지와 아프리카에서 가장 비옥한 토양, 풍부한 강수량, 이상적인 기온,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 등 유리한 조건 보유. 현재 인구의 7배인 2억 1천만 명 이상에게 식량 공급 가능한 잠재력 보유 - 하지만 불량한 종자, 병해충 피해, 토양관리 부실, 관개시설 미비, 낮은 기계화율 등과 같은 원시적인 영농 기술 때문에 우간다 농업 생산성은 세계 최저 수준 - 뿐만 아니라 수확 후 관리 등 부가가치 생산기반 전무, 유통기반 취약 등으로 농업 경쟁력이 매우 낮아 우간다 농업 성장산업화가 절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기획조정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